6-Episode Seasonal Series

SOULR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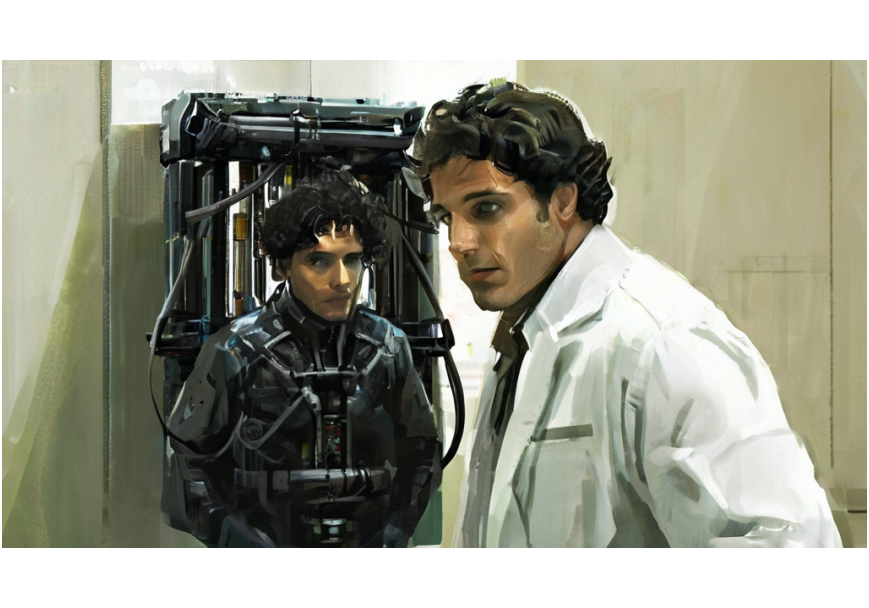
LAHOE HYUN AND THE MANTA STORY

EPISODE 11

❖

동녘은 벽에 결박된 채, 자신의 몸에 주렁주렁 연결된 무수히 많은 케이블 선들을 내려다 보고 있었다.

"이름과 주민번호."



태웅의 차가운 목소리에 동녘이 앞을 바라보았다. 오리엔티스의 대원들이 동녘의 주변을 둘러 싼 채 각종 시스템을 체크하고 있는 풍경이 동녘의 눈 앞에 펼쳐졌다. 평소보다 훨씬 차가운 분위기의 오리엔티스 기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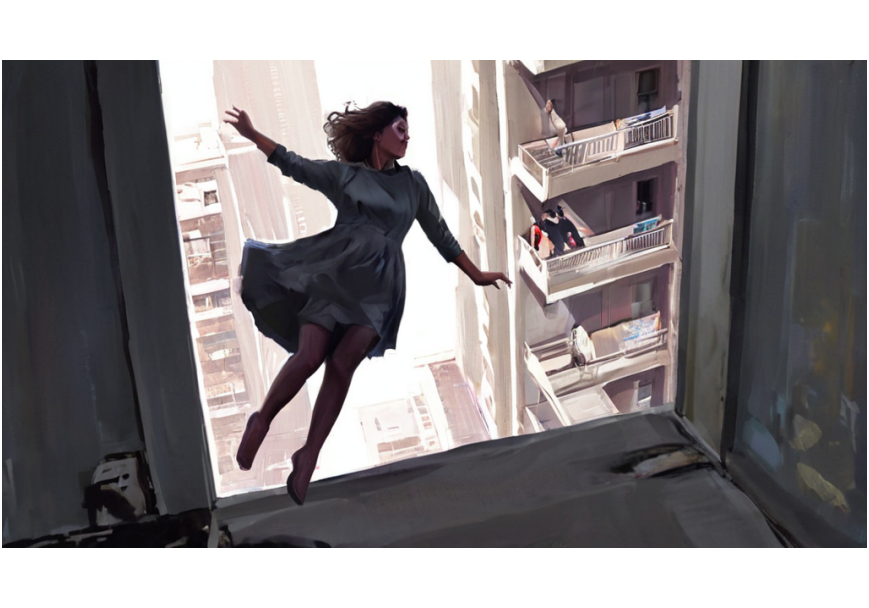
"최동녘. 주민번호는 모릅니다."
"어떻게 주민번호를 모를 수 있지? 학교는 어떻게 다녔어?"
"부모님이 퍼스트 임팩트 때 다 돌아가셔서, 할아버지가 주워서 키웠다고 들었습니다. 학교는 다니지 않았습니다."

태웅과 소연이 미간을 찡그리며 답답한 표정을 지었다. 소연이 태섭에게 말했다.

"태섭, 기억 자료 이미지 렌더링 끝났어?"
"네, 이제 막 끝났습니다."
"최근 자료부터 플레이 해봐."

태섭이 건조하게 '네'라 대답하며 플레이 버튼을 누르자, 모니터에 동녘의 시점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1인칭 시점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동녘의 기억이었다. 우선은 네모가 동녘에게 총을 겨누는 장면이었다. 장면이 전환되자, 동녘이 소연과 싸우는 장면이 재생되었다.

소연이 더 과거로 돌아가야 한다는 듯 고개를 까딱하자 태섭은 버튼을 조작하자 영상 속의 기억이 되돌아가는 속도가 빨라졌다. 개중에 어떤 장면이 소연을 거슬리게 만들었다.



소연 자신의 머리가 바닥에 쿵 떨어지며 깨지는 장면이었다.

"잠깐 멈춰 봐."

영상 속에는 소연의 과거 기억들이 역재생되고 있었다. 태섭이 버튼을 눌러 영상을 정지했다.
소연이 놀란 표정으로 동녘에게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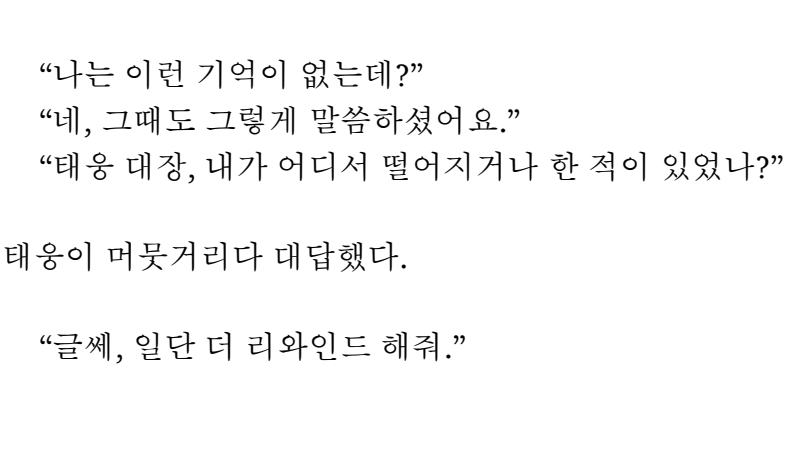
"이건 누구 기억이지?"
"이건 소연 씨 의식이 제 몸에 들어왔을 때의 기억입니다. 제 기억이 아니에요. 소연 씨의 기억 아닌가요?"

소연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이런 기억이 없는데?"
"네,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태웅 대장, 내가 어디서 떨어지거나 한 적이 있었나?"

태웅이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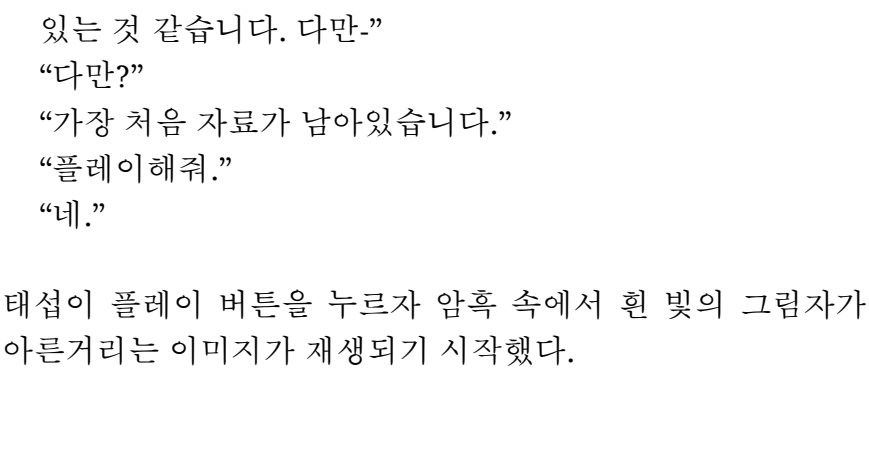
"글쎄, 일단 더 리와인드 해줘."



태섭이 건조하게 '네' 대답하고는 다시 버튼을 조작했다. 동녘의 여러 기억들이 다시 역재생되기 시작했다. 배틀로얄을 벌이던 서바이벌장의 기억, 강 사장이 운영하는 소울라이더 블랙마켓 등이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던 영상이 갑자기 까맣게 암전되었다. 당황한 소연이 태섭을 재촉했다.

"무슨 일이야? 계속 플레이해줘봐."
"이상합니다. 자료가 렌더링이 안 됩니다. 무언가에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다만?"
"가장 처음 자료가 남아있습니다."
"플레이해줘."
"네."

태섭이 플레이 버튼을 누르자 암흑 속에서 흰 빛의 그림자가 아른거리는 이미지가 재생되기 시작했다.



"제대로 플레이 되고 있는 거 맞아?"
"네. 심지어 최대 화질입니다."

이때 갑자기 낮고 음산한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바흘라 옴니무스 비브르 타고르..."

순식간에 대원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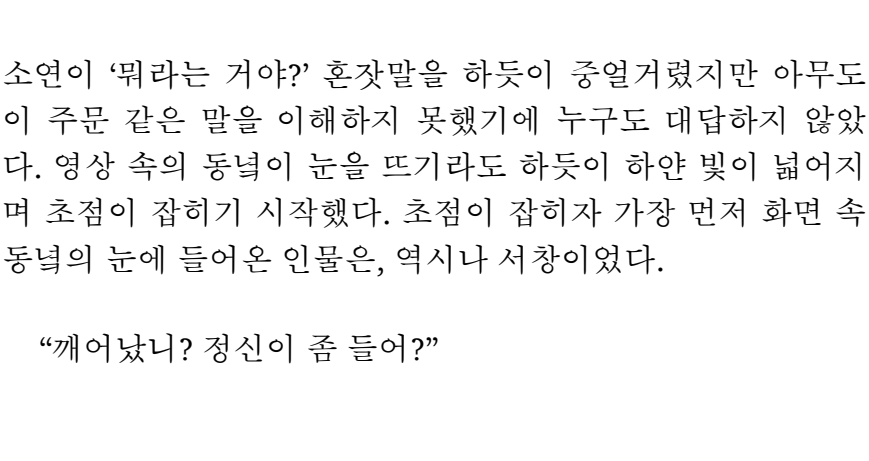
"바흘라 옴니무스 비브르 타고르..."

이 목소리는 분명, 할아버지인 서창의 목소리였다. 대원들에게는 '네모'라는 이름이 더 익숙할 그 사람.

"바흘라 옴니무스 비브르 타고르..."

소연이 '뭐라는 거야?' 혼잣말을 하듯이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이 주문 같은 말을 이해하지 못했기에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다. 영상 속의 동녘이 눈을 뜨기라도 하듯이 하얀 빛이 넓어지며 초점이 잡히기 시작했다. 초점이 잡히자 가장 먼저 화면 속 동녘의 눈에 들어온 인물은, 역시나 서창이었다.

"깨어났니? 정신이 좀 들어?"



화면 속 동녘이 주변을 둘러보았다. 움막 같은 곳에 기계 장치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어, 기묘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움막 밖으로는 폐허가 보이고, 여기저기서 총격음이 울려퍼지고 있었다. 영상 속 동녘이 다시 서창을 보려는 찰나, 쾅! 폭격음과 함께 화면이 암전되었다.

"이게 몇 년 전 기억이야? 태어날 때 기억은 없어?"
"이게 가장 오래된 기억입니다.

동녘이 충격적인 표정으로 말했다.

"이거 나도 기억 안 나는 건데, 어떻게 이런 게 남아있죠?"
"보통 기억이 나지 않아도 몸에는 다 남아있기 마련이야. 태섭, 이게 몇 년 전이지?"

태섭이 데이터를 체크하며 대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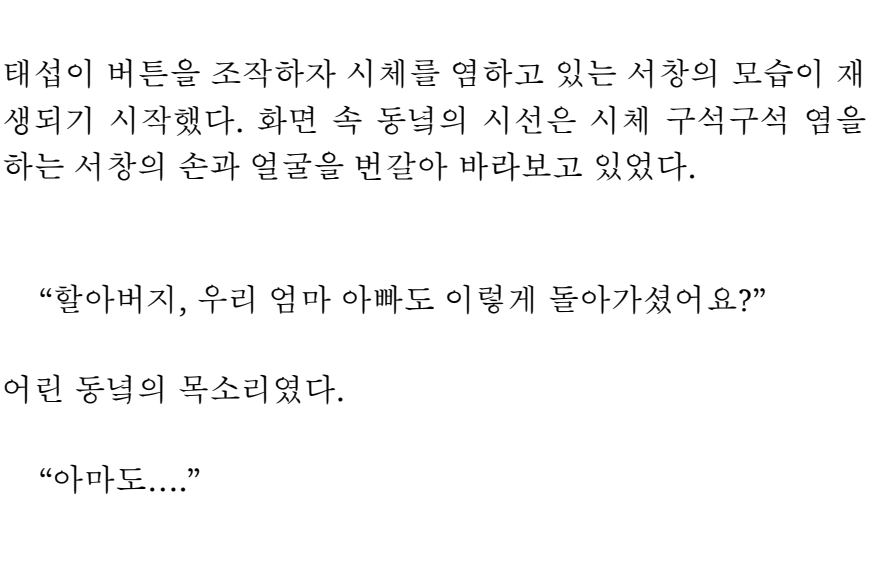
"세포 분열 수치로 계산하니 24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2077년 정도겠네요."
"재생 가능한 기억이 더 있어?"
"몇 달 후의 기억입니다."

태섭이 버튼을 조작하자 시체를 염하고 있는 서창의 모습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화면 속 동녘의 시선은 시체 구석구석 염을 하는 서창의 손과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다.

"할아버지, 우리 엄마 아빠도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어린 동녘의 목소리였다.

"아마도...."



"할아버지도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되구요?"

서창은 묵묵히 염을 하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서야 대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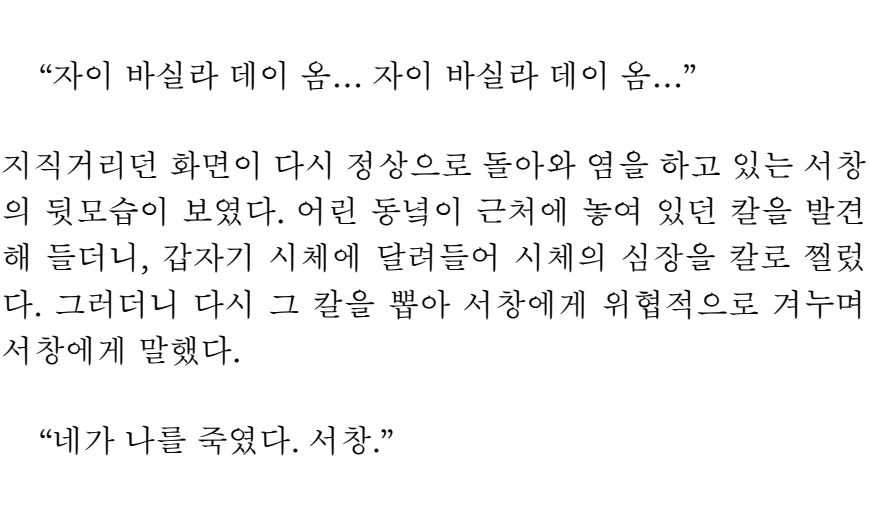
"우린 모두 죽어야 한단다."

이 대답이 끝남과 동시에 화면이 깨지기 시작하더니 여러 이미지가 겹쳐서 재생되기 시작했다. 실험실에서 무언가 작업하는 듯한 모습, 젊은 시절의 서창, 그 위로 끼어드는 어린 동녘의 목소리.

"자이 바실라 데이 옴... 자이 바실라 데이 옴..."

지직거리던 화면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 염을 하고 있는 서창의 뒷모습이 보였다. 어린 동녘이 근처에 놓여 있던 칼을 발견해 들더니, 갑자기 시체에 달려들어 시체의 심장을 칼로 찔렀다. 그러더니 다시 그 칼을 뽑아 서창에게 위협적으로 겨누며 서창에게 말했다.

"네가 나를 죽였다. 서창."



서창이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더니 동녘이 손을 틈도 없이 빠른 속도로 주머니에서 주사기를 꺼내 동녘의 목을 찔렀다. 주사기 속의 약물이 동녘에게 주입되자 화면이 검게 암전되었다.

오리엔티스의 기지에는 침묵이 감돌았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설명할 수 있나? '네가 나를 죽였다'니, 이게 무슨 뜻이야?"
"나도 몰라요. 전혀 기억도 나지 않고."

멀리서 누군가 끼어들었다.

"백호. 자네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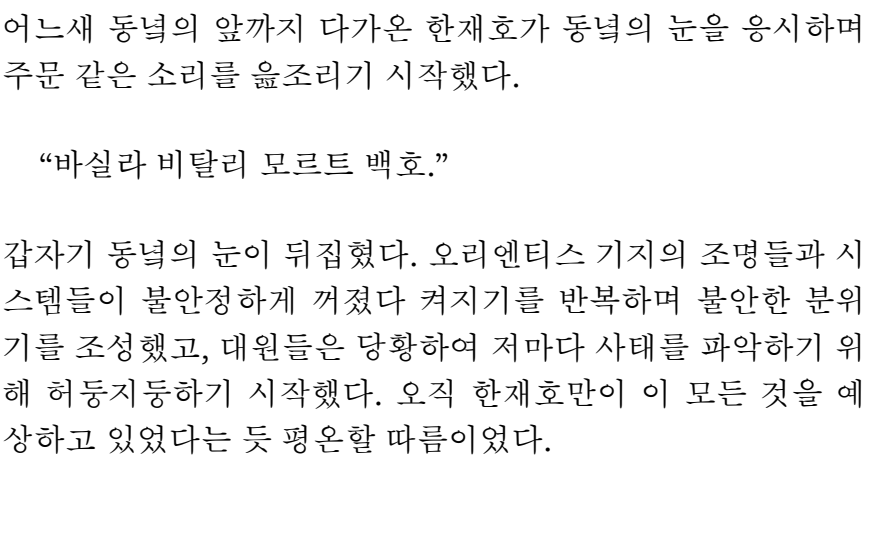
한재호의 목소리. 대원들이 고개를 돌리자, 한재호가 동녘과 대원들이 있는 곳으로 휠체어를 탄 채 다가오고 있었다.

"백호라뇨? 무슨 말씀이세요?"

어느새 동녘의 앞까지 다가온 한재호가 동녘의 눈을 응시하며 주문 같은 소리를 읊조리기 시작했다.

"바실라 비탈리 모르트 백호."

갑자기 동녘의 눈이 뒤집혔다. 오리엔티스 기지의 조명들과 시스템들이 불안정하게 꺼졌다 켜지기를 반복하며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했고, 대원들은 당황하여 저마다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 허둥지둥하기 시작했다. 오직 한재호만이 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평온할 따름이었다.



동녘이 몸을 떨며 읊조리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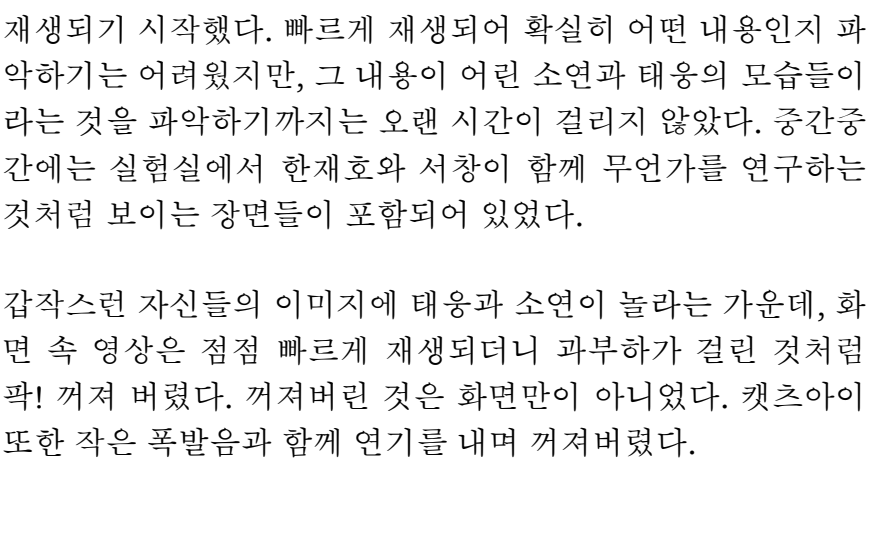
"자이 바실라 데이 옴... 자이 바실라 데이 옴..."

동녘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눈을 뜨자, 오리엔티스 기지의 전력이 원래대로 복구되었다. 태섭이 시스템 화면을 보더니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잠겨 있던 기억들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섭이 버튼을 조작하지 않았는데도 화면 속에 온갖 영상들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빠르게 재생되어 확실히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기는 어려웠지만, 그 내용이 어린 소연과 태웅의 모습들이라는 것을 파악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중간중간에는 실험실에서 한재호와 서창이 함께 무언가를 연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갑작스런 자신들의 이미지에 태웅과 소연이 놀라는 가운데, 화면 속 영상은 점점 빠르게 재생되더니 과부하가 걸린 것처럼 팍! 꺼져 버렸다. 꺼져버린 것은 화면만이 아니었다. 캣츠아이 또한 작은 폭발음과 함께 연기를 내며 꺼져버렸다.



동녘이 눈을 감자, 모든 시스템이 꺼지며 오리엔티스 기지의 조명도 어두워졌다.

한재호는 여전히 평온한 태도로 동녘을 보며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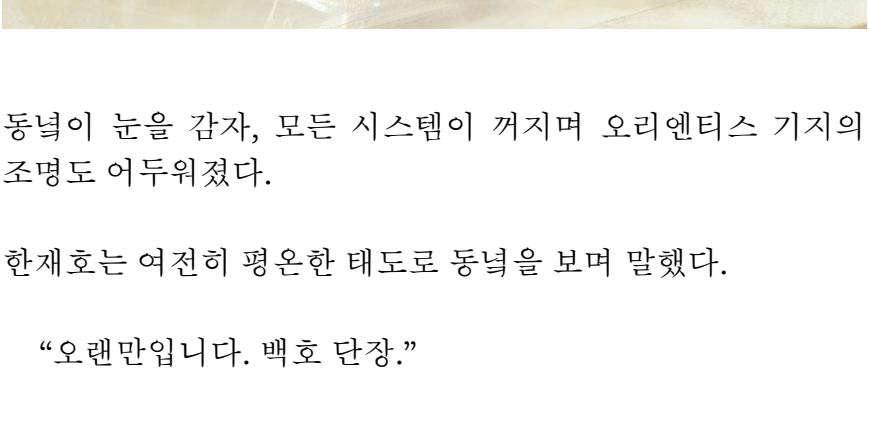
"오랜만입니다. 백호 단장."

재호는 몸을 돌려 태웅을 보며 말했다.

"태웅아. 인사해라. 네 아버지다."

태웅이 혼란스러워하는 와중에 재호는 소연을 보며 말했다.

"소연, 당신 남편입니다. 그동안 말하지 못해 미안합니다."



Continued to ep.12

LAHOE HYUN & THE MANTA STORY

https://themantastory.com
e-mail : copyright_dept@themantastory.com
© 2024 TheMantaStory, Inc. All right reserved.